

86.4.18

여성단체 활력이 필요하다

한국부인회·주부교실·주부클럽등 고령화추세
회장 장기집권·젊은세대 참여저조로 활동부진

김미경 기자

일부 여성단체가 노령화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몇몇 여성단체들의 경우 10~20년 넘게 같은 인물이 회장 자리를 차지해 조직이 경직화되는가 하면, 유능한 젊은 회원이나 간사 등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부진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참신한 여성문제를 제대로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단체 고령화 현상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국부인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이 꼽힌다.

한국부인회의 경우 박금순(69) 회장이 지난 74년부터 회장직을 20년(92년부터 95년까지는 명예회장직) 가까이 계속 맡아오고 있으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69) 회장은 지난 77년부터 줄곧 회장직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들락날락했지만 한번도 회장직을 놓아본 적이 없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김천주(64) 회장도 지난 85년부터(91년부터 92년 1년간 제외) 계속 맡아오고 있으며, 한국우먼스클럽(김인숙 71년~현재) 한일여성친선협회(박정자 78년~현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여귀옥 70년~현재) 등도 10~20년씩 같은 인물이 회장으로 있다. 여성단체는 아니지만 한국소비자연맹도 정광모(68) 회장이 지난 78년부터 계속 회장직을 맡고 있다. 물론



박금순씨



이윤자씨



김천주씨

한 인물이 단체 회장을 오래한다는 사실만으로 단체활동 전체를 깎아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오랜기간 책임자로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체 활동이나 인원구성이 꾸러지면서 새로운 운동방향의 제시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막히게 되는 점이 문제”라는 게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들 중 사회변화에 맞춰 참신한 활동을 펴고 있는 단체를 찾아보기 힘든 점도 이를 잘 설명해준다. 실제 이번 총선을 겨냥해 한국부인회는 ‘여성의 정치참여의식’ 설문조사를,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공정선거감시단 발족’ 등을 계획했지만 전혀 추진하지 않는 등 올해들어 이들 단체의 뚜렷한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주부클럽연합회가 해마다 시상하는 ‘신사임당상’도 젊은 여성들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운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각 여성단체들에 젊은 회원이나 활

동가가 모여들지 않는 점도 여성운동의 또 하나의 노령화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취업이 늘면서 월 5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뚝’만 가지고 여성단체라는 직장을 선택할 활동가를 찾기 힘들게 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희 정책부장은 “젊은층들에게서 사회변화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면서 대학졸업 뒤 활동가로 여성운동단체를 찾는 층이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이영자 교수는 “여성단체의 노령화는 여성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단체 전반의 문제”라면서 “여성단체가 새로운 미래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중간지도자를 기르고 신세대를 끌어들이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